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537>

JCCT 2022-11-66

2021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의 인지전 사례 연구

A Case Study of Cognitive Warfare in the Israel-Palestinian Conflict in 2021

조상근*, 최순식**, 우성하***, 김기원****, 이승현*****, 박상혁*****

Sang Keun Cho*, Soon Sik Choi**, Seong Ha Woo***,
Ki Won Kim****, Seung Hyun Lee*****, Sang Hyuk Park*****

요약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부각되고 있는 “인지전”은 이미 이전의 전쟁에서도 존재하였으며 지금은 전쟁의 주요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을 정도로 그 의미와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 인지전의 등장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으로 그 파급효과가 주목받은 이후 2021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는 한 단계 높아진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특히 SNS를 활용한 인지전은 군사작전의 주요수단으로써 국제사회, 국민, 하마스 등 명확한 목적과 대상을 선정하여 치밀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전쟁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전 세계가 초연결됨에 따라 점차 부각되고 있다. 현대전에서의 새로운 전쟁양상인 인지전의 주요 내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다면 미래전쟁에서 어느 국가보다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인지전, 초연결, 4차 산업혁명,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Abstract The “cognitive warfare,” which has emerged as a result of the Ukrainian-Russian war, has already existed in the previous war and is now emerging as a major aspect of the war, its meaning and influence are increasing. Recognizing the emergence and importance of cognitive warfare and understanding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cognitive warfare must be accompanied by victory in the modern war. After Russia's alleged involvement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2016 drew attention,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in 2021 confirmed its upward influence. In particular, 'cognitive warfare' using SNS played a major role in leading the war to its advantage and maintaining the initiative by selecting clear purposes and target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people, and Hamas. This new pattern of war is gradually emerging as the world is hyper connected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play a leading role in the future battle if it clearly recognizes the main contents of the new war, "Injijeon," and has the ability and ability to actively operate it.

Key words : Cognitive Warfar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raeli-Palestinian, Conflict

*정회원, 육군대학 전략학처 교관 (제1저자)
**정회원, 육군대학 공격전술학처 교관 (참여저자)
***정회원, 육군대학 공격전술학처 교관 (참여저자)
****정회원, 대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참여저자)
*****정회원, 국방부 근무지원단 참모장교 (참여저자)
*****정회원,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 2022년 10월 31일, 수정완료일: 2022년 11월 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9일

Received: October 31, 2022 / Revised: November 6, 2022
Accepted: November 9, 2022
*****Corresponding Author: plbas@hanmail.net
Dept. of Military Science, WooSuk Univ, Korea

I. 서론

‘인지전’은 어떠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알고 있다는 뜻의 ‘인지’와 전쟁양상을 의미하는 ‘전’을 결합한 용어이다[1]. 그러나 이 용어를 처음 듣거나 들었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의미와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다. 이는 인지전이 부각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얼마전 까지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주요 전쟁의 이면에 인지전의 파급효과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인지전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2016년 러시아의 미국대선 개입 의혹사건이었다. 그 당시 러시아는 미국 대선에 개입하여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2].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시도가 실제 가능한 부분이고 그 효과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동기이다.

인지전에 대한 개념이 교리적,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8월 19일 육군대학에서 개최했던 우-러 전쟁연구 세미나에서 발표된 인지전에 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지전은 ‘전·평시 합법적인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상대(국제사회, 적, 아군, 국민 등)의 인지영역에 접근함으로써 자국의 의도대로 상대국이 생각(사고)하고 행동하도록 변화시키는 전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3].

또한, 인지전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강조하였는데 첫째는 수단과 방법이 합법적인 것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합법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조작이나 왜곡이 없는 사실에 근거한 백색정보를 활용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작전활동이 아니라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전쟁의 양상이라는 것이다[4].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러전쟁에서도 집중 조명을 받고 있고 앞으로 그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 안보환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군사작전이 전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통해 인지전의 정확한 내용과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2021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경과

지난, 5월 7일은 라마단 마지막 주 금요일로 ‘알 아크사(Al-Aqsa) 사원’에서 예배를 마친 팔레스타인들이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대한 항의를 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때 이스라엘 군경은 하마스 기를 들고 거세게 항의하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약 2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태로 인해 하마스는 까삼로켓(Qassam Rocket)을 예루살렘을 향해 발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방위군(Israel Defense Forces, IDF) 공군은 가자지구를 폭격하여 양측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전운이 감도는 계기가 되었다.



출처: <https://www.timesofisrael.com/like-monty-python-tv-detail-s-how-hamas-accidentally-fired-at-tel-aviv/>

그림 1. Hamas가 운용 중인 까삼로켓
Figure 1. Quassam rockets being operated by hamas

5월 8일은 양측 간의 충돌은 계속되고,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의 강경진압을, 이스라엘 측은 팔레스타인의 불법 무력시위를 비난하면서 이들 간의 충돌은 더욱 거세졌으며 5월 10일은 팔레스타인 수천여 명이 예루살렘에 군집하여 양측의 충돌은 더욱 거세졌고, 사상자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해 이스라엘 방위군(IDF)을 알아크사 사원 일대로 급파하게 되었으며 5월 11일 하마스는 IDF의 철수를 18:00까지 완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한다. 이에 하마스는 15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하고, IDF는 하마스의 주요 거점을 공습하여 사태 규모와 피해는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5월 12일 IDF의 공습으로 가자지구를 통제하고 있던 하마스의 바셈 이사(Bassem Issa)와 주요 직위자가 사망하게 된다.



출처 : Joseph trevithick, "palestinian militants are now launching suicide drones at israel", 2021

그림 2. Hamas가 운용 중인 자폭드론(Shehap)
 Figure 2. Shehap suicide drone being operated by hamas

(5월 13일) 하마스는 이스라엘 전역을 타겟으로 3,000여 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하였으며 이에 IDF는 아이언돔(소형 미사일 방어체계)을 활용하여 하마스 로켓의 90% 이상을 무력화했다[5]. 그러자 하마스도 이스라엘 측의 피해를 강요하기 위해 자폭 드론을 활용하여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5월 14일 IDF는 지상군과 공군의 본대를 투입하여 하마스 주요 거점을 타격하기 시작했고, 하마스 역시 가자지구 지하에 은거하며 생존성 보장대책을 강구한 후 로켓공격으로 반격을 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분쟁의 시작이 알카사 사원에서 시작된 작은 시위였으나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대 세력 간의 무력충돌로 걷잡을 수 없게 확대되었다. 비록 이집트와 UN이 중재에 나서 양측이 휴전에는 합의하였지만, 여전히 이들간에는 잠재적 갈등요소는 해소되지 않아 충돌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III.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SNS를 활용한 인지전(Cognitive Warfare)

IDF는 하마스의 공격과 이에 대한 대응 관련 현황을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인지전을 수행했다. IDF가 이러한 작전을 수행한 목적은 일반적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6]. 인지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마스의 저항의지를 약화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이스라엘군의 군사적 대응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지전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적의 의지를 저하시키는 것과 이와는 반대로 아군의 의지를 고양시키는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에 해당한다[7]. 2020년 아제르바이잔군은 아르메니아군을 상대로 인지전을 전개하였고, 아제르바이잔군의 공격드론이 상대방의 전차 및 방공장비에 대한 타격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함으로써 아르메니아군의 의지를 약화시킨 사례가 있다[8]. IDF도 아제르바이잔군과 유사하게 소셜미디어를 인지영역의 군사작전 수단으로 활용하고 하마스·국제사회·국민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인지전을 수행하였다.

3.1 하마스를 대상으로한 인지전

IDF가 하마스 대상으로 실시한 인지전은 심리적인 적의 의지 파괴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영역에서 적에게 타격을 입힌 대표적인 사례이다.

5월 13일부터 18일까지의 전투를 살펴보면, 5월 13일 오전 9시경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지상군을 가자지구에 투입하는 군사적 옵션을 언론에 공개한다. 이어 5월 14일 24시경 IDF는 “지상군과 공군이 동시에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한다[9]. 이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 주요언론은 IDF 지상군이 가자지구에 진입한다는 것을 기정사실과 같이 널리 알리게 된다.



출처 : Israel Defense Forces on Twitter

그림 3. 5월 14일 가자지구 공격을 알리는 IDF 트위터
 Figure 3. Announcing attacking the gaza strip on may 14 on twitter

하마스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를 준비하고, 지하 시설에 얽매되어 있던 장비와 병력 등을 앞으로 벌어진 지상작전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였던 가자지구 병력 및 장비를 배치한다. 이 과정을 IDF는 정찰위성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하마스의 지하터널 출구와 입구를

식별하였다. 이어 IDF의 공군은 공대지 미사일을 통해 지하터널과 연계된 하마스의 주요 지점을 동시에 정밀 타격하였다[10]. 하마스의 지하터널 출구와 입구를 확인하기 위해 인지전을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물리적인 타격을 입히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였다. 이는 하마스가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등 국제적인 이슈를 제기하여 IDF의 군사작전 정당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더불어 하마스 내에 심리적인 공포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IDF는 다음 날인 18일까지 정밀타격을 지속하였고 이에 대한 하마스의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하마스의 피해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IDF는 소셜미디어를 군사행동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군사작전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물리적인 성과와 심리적인 효과를 동시에 거두었다.

3.2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인지전

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선제공격을 통한 예방전쟁을 주로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주변이 아랍국으로 둘러쌓여 있고, 작전지역의 중심이 아랍국으로 돌리려는 순간 국가가 위태로워지는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출처: Israel defense forces call off airstrike in Gaza after spotting children(<https://youtu.be/ovhpsGYUouE>)

그림 4. 가자지구 내 목표에 어린이 확인 후 IDF의 타격임무 취소 영상

Figure 4. IDF C2 called off an airstrike due to presence of children at target location in GAZA

이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도 선제공격을 실시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지전을 실시하였다. 먼저, IDF 공군의 정밀타격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함으로써 민간인에 대한 오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또한 공군 조종사가 목표 인근에 어린이를 식별하고 임무를 취소하는 영상을 추가 공개함으로써 선제공격으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제시하였으며 추가로 국제언론에 이스라엘 입장을 전문가를 활용해 대변하도록 하였다. IDF 대변인인 조나단 콘리쿠스(Jonathan Conricus) 중령은 붕괴된 건물 앞에서 하마스의 로켓공격을 규탄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IDF의 군사작전 정당성을 제시하였다[11].

또한, 국제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IDF가 정밀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영상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IDF는 전문화된 대변인을 통해 국제사회에 IDF의 입장을 일원함으로써 군사작전의 정당성, 국제법 준수, 인명존중 등의 긍정적 인식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처럼 IDF는 국제사회 주요 언론이 제시하는 비난에 대응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제공 등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3.3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지전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군이 존재하는 것이고 군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군이 이러한 최우선적인 임무에 실패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그러한 군대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분명한 진리에 가까운 인류 역사의 한 현상이다.

IDF는 이번 분쟁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SNS를 주로 활용하였다. IDF는 지속적으로 아인언돔 체계를 활용한 하마스 로켓 요격 영상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12]. 5월 19일까지 하마스의 3,000발이 넘는 로켓 발사에 대해 90%이상의 요격을 달성하였는데 이로 인한 공습경보 상황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안정을 찾고 있는 국민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 자주 전하고 있다.



출처 : Toy Staff, THE TIMES OF ISRAEL, 2021

그림 5. 하마스 로켓공격에 대응하는 이스라엘 아이언돔
Figure 5. Battle between Iron Dome and Hamas rockets

또한, IDF는 전투준비태세가 항상 철저하게 갖추어진 아이언돔 구축 현장에 대한 소개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였다. 이 영상 속에는 콘쿠리스 IDF 대변인과 아이언돔 운용요원인 아얌라(Ayala) 상병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는데, 단순히 무기체계 성능뿐만 아니라 유대민족으로서 하나된 모습, 즉 강력한 응집력을 보여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IDF가 SNS를 통해 자신들을 홍보함으로써 소속대원들을 모집·확충하고 전 세계적인 결집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이언돔 포대 운용현장을 방문한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도 대원들을 치하하면서 동시에 대국민 메시지를 SNS를 활용하여 전하였다.



출처: Prime Minister of Israel on Twitter

그림 6. 트위터에 게재한 네타냐후 총리의 아이언돔 포대 방문
Figure 6.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visited an Iron dome battery

종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정부와 군이 SNS라는 강력한 매개체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얻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현대전쟁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전쟁양상인 인지전에 대한 개념을 고찰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현대전은 더 이상 물리적인 전투로만 결정되지 않고 다영역 차원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그 중 하나가 인지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IDF가 수행한 SNS를 활용한 공세적인 군사작전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였다. 4차 산업혁명에 기초한 초연결되는 작전환경에서 인지전은 새로운 전쟁양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SNS를 활용한 인지전은 전쟁에서 주요수단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으로의 전장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단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지전과 물리적 공간에서의 군사작전이 융합된다면 그 효과는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전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기반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닌 민간영역의 전문가, 콘텐츠, 다양한 전략적 소통 채널 등의 사회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IDF가 성공적인 인지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인지전에 대한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었던 인력풀이 있었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인지전의 새로운 전쟁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운용개념, 기반체계, 수행인력을 두루 개발하여 실전에서 적용 가능한 인지전 수행능력을 구비할 필요가 절실해 지고 있다.

하지만, 인지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역사가 짧은 만큼 민간사회 및 군(軍) 모두 아직 갈길이 멀고 연구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상당하다. 탄탄한 기초연구가 선행되고 다양한 후속연구가 지속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새로운 전쟁양상에 대응하는 다양한 산물 및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인지전 연구가 확장되는 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해본다.

References

- [1] François du Cluzel, “Cognitive Warfare”, NATO Innovation Hub, pp. 6-8, 2020.
- [2] “Here’s What we know so far about Russia’s 2016 Meddling”, 2019. 4. 18.
- [3] Bernard Claverie, François du Cluzel, “The Cognitive Warfare Concept”, p2, 2021.
- [4] Yoram Schweitzer, David Siman-Tov “The Cognitive War between Israel and Hamas :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2022. 5. 29.
- [5] How Israel’s Iron Dome missile shield works, 2021. 5. 17.
- [6] “The IDF must revise its concept of information campaigns”, 2021. 7. 12.
- [7] François du Cluzel, “Cognitive Warfare”, NATO Innovation Hub, p11, 2020.
- [8] günlük Vətən müharibəsində HHQ-nin məhv etdiyi düşmən hədəfləri, 2021. 4. 5.
- [9] IDF air and ground troops are currently attacking in the Gaza Strip, Israel Defense Forces official twitter, 2021. 5. 14.
- [10] Israel strikes hit Gaza tunnels as diplomats work for truce, 2021. 5. 17.
- [11] Join IDF International Spokesperson LTC Jonathan Conricus LIVE at an Israeli home struck by a rocket launched from Gaza which killed an Israeli civilian, Israel Defense Forces official twitter, 2021. 5. 11.
- [12] Join IDF International Spokesperson LTC Jonathan Conricus LIVE at an Israeli home struck by a rocket launched from Gaza which killed an Israeli civilian, Israel Defense Forces official twitter, 2021. 5. 11.